

제1절 구산리(九山里 : 1·2·3·4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뒷들(1里), 바깥잘미(2里), 안잘미(4里) 동쪽은 매화천(梅花川)이 흐르고, 건너편에 성류굴이 보이며, 서쪽은 남수산(嵐岵山)의 지맥(支脈)이 마을 뒷산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남쪽은 매화리, 북쪽은 수곡리가 있다. 동쪽은 왕피천이 굽이굽이 흐르는 곳을 따라 6km 거리에 안잘미가 있고, 서쪽은 통고산맥(通古山脈)과 금장산맥(金藏山脈)이 있으며 그사이가 왕피천 상류(上流)다. 남쪽은 금장산맥의 지맥(支脈)이 가로 놓여있고, 북쪽은 통고산(通古山) 지맥(支脈)이 동쪽으로 뻗어있는 경치 좋은 곳이다. 마을회관은 1979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최근에 매화면 남수산의 석회산 광산이 성업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굴구지(九臯3里)

1300년경에 충주 지씨(忠州池氏)가 개척한 마을로 왕피천 하류(下流)에 있는 월호동(月湖洞)에서부터 아홉 고개를 넘어 마을이 있다 하여 구고(九臯)라 한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탑평(塔坪), 원심(遠深)이라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탑평(塔坪)은 2가구가 살고 있으며, 고려 시대의 삼층석탑(三層石塔)이 있다 하여 마을 이름을 탑평이라 하였고, 원심은 멀고도 깊은 산속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원심이라 부르게 되었다.

2) 달길(月湖)

1300년경에 이루어진 작은 마을로 작은 지형(地形)이 호수(湖水)에 비치어 더욱 아름답다고 하여 월호리(月湖里)라 하였다. 그리고 1940년경에 만들어진 못(城山池, 둘레 300m)이 있어 붕어, 뱀장어가 많아 낚시꾼이 모여들고 있다.

3) 뒷들, 북평(1里)

1450년경에 경주 이씨(慶州李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여 뒷들이라 하였는데, 이 마을은 토질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되는 들판 뒤쪽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그리고 뒷들 혹은 성산동(城山洞) 북쪽에 있는 들이란 뜻에서 북평(北坪)이라 부르기도 한다.

4) 안잘미(九山4里), 바깥잘미(九山2里)

1530년경에 삼척 김씨(三陟金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여 성산(城山) 잠미(岑味)라 하였다. 성산이라 한 것은 사방의 산이 성(城)같이 둘러싸였기에 지어진 이름이고, 잠미(岑味)라 하는 것은 마을 중앙의 낮은 산에 옛날에 배잠사(盃岑寺)라는 절이 있었고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탑과 당간지주가 있었다. 이 절터 안에 있는 마을을 안잘미 혹은 내성산(內城山)이라 하고, 바깥쪽에 있는 마을을 바깥잘미 혹은 외성산(外城山)이라 부른다.

3. 성씨별가구 분포

총 215세대가 거주하며 구산1리인 뒷들에 94세대가 거주한다. 주로 신안 주씨(新安朱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울진 임씨(蔚珍林氏)가 세거한다. 구산2리인 바깥잘미에는 30세대가 거주하며 신안 주씨(新安朱氏), 현풍 곽씨(玄風郭氏), 여양 진씨(驪陽陳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등이 분포한다. 구산4리인 안잘미에는 41세대가 거주하며 광산 노씨(光山盧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등이 세거하며 구산3리인 굴구지에는 50세대가 거주하며 주로 삼척 김씨(三陟金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세거한다.

4. 마을의 특징(特徵)

1) 막(幕)소나무

구고리(九臯里)를 개척할 때부터 있었다는 이 소나무는 둘레 3.5m인 노송(老松)으로 속은 동공(洞空)이 생겼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이 소나무 밑에 막(幕)을 짓고 있었다 하여 막소나무라 한다.

2) 삼층석탑(三層石塔)

근남면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3층 석조 불탑이다. 보물 제498호이며, 높이 3.24m, 2층 기단 위에 세운 자그마한 3층 석탑이다. 지대석(地臺石)과 중석(中石)을 한 데 붙여서 4매석으로 구성하였고, 중석에는 우주[隅柱: 모서리기둥]와 탕주[撐柱: 받침기둥] 1주가 있다. 탑신부(塔身部)는 옥신석(屋身石)과 옥개석(屋蓋石)이 각각 1석씩이고, 각 층 옥신석에는 우주형을 조각하였다. 규모는 작으나 신라석탑의 전형 양식을 잘 계승하고 있다. 이 석탑은 일찍이 도괴되었던 것을 1968년 복원하였다.

3) 청암정(靑岩亭)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구고동 청암폭포 위에 있는 정자이다. 청암정은 매화면 매화리에 거주하던 만둔(晩遯) 윤상건(尹相健)의 장루지처(杖屨之處)이다. 윤상건의 동생 윤상일(尹相駟)이 형을 위하여 건립하였다고 한다. 청암정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소로 수장형 건물로, 지붕은 겹처마에 골기와로 팔작지붕을 이었다. 그 경개(景概)가 산수간(山水間)을 통한다. 서쪽의 송노봉, 남쪽의 칠성봉, 동쪽의 향노봉이 우아하다.

4) 학소대(鶴巢臺)

굴구지 마을 앞 양쪽으로 흐르는 냇물 속에 섬처럼 우뚝 솟은 큰 바위인데 약 200년 전에 임씨(林氏)가 이 바위 위에 흙을 덮고 선조(先祖)의 분묘(墳墓)를 만들었으나, 홍수(洪水)로 묘(墓)를 유실당하였다. 이곳에는 많은 선비가 찾아와서 주위의 절경(絶景)에 도취되어 시(詩)를 읊고 송덕비(頌德碑)를 세웠으나, 비(碑)는 없어지고 시문(詩文)만 구전(口傳)되어오고 있다. 시문 일단을 소개하면 “靑松에 白雲鶴이요 鶴巢에 雲萬里라”.

제2절 노음리(老音里：1·2·3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산포1리인 도촌(島村)마을과 접하고, 서쪽으로 성류굴과 불영사계곡이 있으며, 구산1리, 수곡1리와 경계하고 있다. 남쪽은 매화면 금매리와 경계를 하고, 북쪽은 왕피천이 동해로 흐르고 있다. 마을회관은 1982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국민동굴로 주목받고 있는 성류굴이 있으며, 주변에 상가들이 형성되어있는 관광지이다. 성류굴 맞은편에 울진군종합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다. 또 노음리 맞은편에 경북도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최근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다수 들어서서 울진읍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